

##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 폰 전공, 스마트 월드를 꿈꾼다

- 홍명헌(청강문화산업대학 모바일스쿨 스마트폰 전공)
- 양정운(청강문화산업대학 모바일스쿨 스마트폰 전공)

문화특성화 대학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청강문화산업대학(총장 김영환)은 2011년 국내 최초로 5개의 스쿨로 대변신 중이다. 23개 학과 운영 방식에서 ‘모바일스쿨’ ‘콘텐츠스쿨’ ‘에코라이프스쿨’ ‘패션스쿨’ ‘뮤지컬스쿨’ 이라는 5개 그룹 형태로 학교를 재편하였다.

스마트폰 전공은 모바일스쿨 소속이다. 모바일스쿨은 미래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동통신 전공을 모태로, 스마트폰 전공, 모바일보안 전공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하였다. 모바일스쿨은 스마트폰이 모바일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전공에 역점을 두고 스쿨을 육성할 계획이다.

2011년 모바일스쿨 신입생 정원은 총 159명이며, 스마트폰 전공 40명, 이동통신 전공 79명, 모바일보안 전공 40명을 모집 중이다. 2011년 수시 모집에서 우리대학 15개 전공 중에서 스마트폰 전공은 지원자 경쟁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의 스마트폰 열풍이 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스마트폰 전공 교과 과정 개발은 모바일스쿨 9명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교내 5개 스쿨 중 최초로 교과과정을 인증 받았다. 스마트폰 전공은 전임교수 2명과 겸임교수 2명을 배치하였고, 2011년 전임 교수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전공의 핵심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앱개발과 모바일 OS포팅이다. 앱개발과 OS포팅 교육에 필요한, 스

마트폰 10대를 구입하였으며, 최신형 애플 iMac 33대를 갖춘 아이폰 실습실과 PC 45대를 갖춘 안드로이드폰 실습실을 마련하였다. 내년에는 OS포팅과 디버깅 실습 장비도 도입 예정이다.



그림1. 아이폰 실습실

스마트폰 전공의 경쟁력은 청강 모바일 생태계에서 출발한다. 스마트폰 전공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실습환경을 뒷받침하는 모바일스쿨 내부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센터, 전문 앱 개발자를 교육하는 앱창작터가 청강 모바일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앱창작터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하여 국고로 운영하는 앱

교육기관이다. 2010년에 선발한 11개 앱창작터 중 전문대학은 우리대학이 유일한다. 앱창작터 교육은 현업 스마트폰 앱 개발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재학생을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실무프로젝트 중심의 전문 앱개발 교육을 제공한다.



그림2. 앱창작터 현판

2010년 앱창작터 기본 개발자 과정은 애플, 안드로이드, 바다 3가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순한 운영체제를 가르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습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게임의 인터랙티브, 만화의 스토리텔링을 담아내었다.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안드로이드과정, 애플과정 각 30명씩 3주간 기본개발자 과정을 진행하였다. 개인별로 1개 이상의 앱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상장과 상품 이외에, KT위크숍과 SKT아카데미 심화교육에 무상으로 참석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전문 개발자 과정은 'Unity 3D를 활용한 애플 앱 게임 개발', '증강현실 API를 통한 위치 정보서비스 개발', 'HTML5와 PHP를 활용한 웹앱 개발' 등으로 특화되었다. 10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바다과정(1회), 애플과정(5회), 안드로이드과정(3회) 등 총9회 전문 개발자 과정을 진행하였다.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SKT아카데미와, 모바일스쿨(스마트폰 전공)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앱창작터 심화과정도 스마트폰 전공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심화과정은 11개 앱창작터 수료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앱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스마트폰 전공이 교육 운영을 주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5주간 우리대

학 중소기업직업훈련센터에서 숙식을 하며 진행하였고, 2차 교육은 2011년 1월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3. 앱창작터 기본교육과정

중소기업직업훈련센터 또한 스마트폰 전공에 큰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직업훈련센터는 강의실, 실습실, 숙소를 갖춘, 단독 건물을 보유한 이동통신 전문교육기관이다. 2008년부터 KT와 KT협력사, SKT, 서울통신 임직원(연인원 약 2,500명)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동통신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맺어진 산학협력은 기업과 대학에 상호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모바일스쿨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보장한다.

2010년 7월,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CS리더를 통해 청강문화산업대학과 스마트폰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스마트폰 하드웨어 및 플랫폼 ▲스마트폰 기술 지원 등 CS리더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반영,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CS리더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함께 전공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파견, 직업교육 강화와 실무능력 배양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림4. CS리더와 업무협정

스마트폰 가치사슬에서 4년제 대학이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설계에 주력한다면,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폰 전공은 스마트폰 제조 과정 이후 즉, 활용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면, 제조 과정에서의 성능과 품질 테스트,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기기 OS 포팅, 스마트워크용 중소형 앱개발, 스마트폰 유지보수 및 기술 상담 서비스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0년 모바일스쿨 소속 이동통신 전공의 취업률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건강보험가입 기준으로 약 76% 수준이다. 건강보험 취업률 76%는 전국 대학의 모바일 계열 학과를 고려할 때 최상위 수준이다. 스마트폰 분야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전공의 취업률도 80% 수준으로 예상한다.

최근의 관심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타난다. 7월에선 MBC에서 11월에는 EBS에서 스마트폰 전공 소개 방송을 하였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국내 대부분의 신문에서도 스마트폰 전공을 기사화 하여, 사회와 국민들의 관심을 지면에 반영하였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폰 전공은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 유선과 무선의 결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탈경계의 상징물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모바일 에코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청강문화산업대학 모바일스쿨 스마트폰 전공에서 시작합니다.

### 저 자 소 개



#### 홍 명 현

1992: 광운대학교  
경영학 경영학사  
1994: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 석사  
2003: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 박사  
현 재: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폰 전공 교수  
관심분야: 앱 기획과 개발



#### 양 정 운

1982: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84: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88: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현 재: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폰 전공 교수  
관심분야: 모바일 OS포팅